

## 광주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 이전 동력 삼아야

10년간 법인세 50~100% 감면  
기업 상속 공제대상 확대 '호재'  
AI 유치기업 13개사 철수·폐쇄  
"기존 이전기업 지원도 늘려야"

인공지능(AI) 기업들의 광주 이전이  
속속 이뤄지면서 'AI 대표도시 광주' 입지  
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최근 광주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서 △10년에 걸쳐 법인세 50~100% 감면  
△기업 상속 공제대상 확대 등의 혜택을  
적극 홍보해 타 지역 기업의 광주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기업 유치뿐 아니라 기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며 광주  
시의 지원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  
그린에이아이, ㈜뉴럴디, ㈜마이렌, ㈜모  
아이, ㈜제이피넷, 카투(주), 코코넛사  
일로(주), 텐에이전트(주), ㈜엠씨솔루션  
즈, ㈜헤리티지아이티 등 AI 유망기업 10  
개사와 235~244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 이들 기업은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  
립을 통해 AI 전문분야 기술 개발과 사업  
화를 추진해 광주 AI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 등 광  
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  
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AI 전문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  
업화 추진,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AI  
전문분야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  
그램 개발·운영 △AI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기업 대표들은 "광주는 AI데이터센터  
를 중심으로 우수한 AI 기반시설과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특히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효과적인 실증사업  
이 가능해 기업성장의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광주를 택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을 보유한 AI 기업들  
이 광주로 향하면서 광주 미래 먹거리 창  
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광주시가 '기  
회발전특구' 로 지정되면서 기업들의 이전

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빛그린국가산단 68만6797㎡  
(20만7000평)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52만3560㎡(15만8000평)이 산업  
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신규 지  
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한 지역 주도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구역이다. 지역 산  
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클러스터와 앵커  
기업이 협력해 지역경제의 자립을 강화하  
는 것이 목표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  
화가 제공되며, 기업 유치, 첨단 인프라  
구축 등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지방 주도의 특구 개발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지역 이전을 촉진하고, 민  
간자본을 활용한 균형발전을 꾀한다.

광주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빛  
그린국가산단을 모빌리티분야 특구로, 첨  
단3지구를 AI분야 특구로 각각 키운다.  
특히 앵커기업인 ㈜DH오트웨어 등 기업  
들을 유치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기로

하고 각종 혜택을 앞세워 기업 유치에 공  
을 들이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는 호재에도 불  
구하고 이전 기업의 이탈도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해까지 유치한 AI 기

업 중 11개사가 철수했고 2개사는 폐업했  
다. 이 중에는 솔트룩스 광주지사나 나무  
기술의 자회사 나무인텔리전스 등 굵직한  
기업들도 포함됐다.



2면에 계속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광주FC, 아챔 홈경기 광주서 제대로 치른다

아시아챔피언스 리그

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상태 '양호'  
아시아축구연맹 밀도 등 실사 결과  
시 "최상 경기력 위해 상태 유지"

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가 우려한  
것과 달리 양호한 것으로 확인돼 광주FC  
의 아시아챔피언스 엘리트(ACLE) 5차  
전 홈경기가 오는 27일 광주서 정상적으  
로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12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이 아시아챔피언스 엘리트 5차전 홈경기  
개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

과, 홈경기 개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FC는 오는 27일 광주월  
드컵경기장에서 상하이 선화(중국)와  
2024~2025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5차전  
을 치르고, 12월 3일 상하이 하이강(중  
국)과 원정 6차전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  
리한다.

광주FC는 구단 사상 첫 아시아챔피언스  
무대에 진출, 3연승후 지난 5일 일본 비셀  
고베에 0-2로 패하며 현재 동아시아권 12  
개팀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실사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축  
구 경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잔디의 밀도와 평탄성을 집

중 점검했다.

광주시는 이번 실사에 대비해 폭염·폭  
우 등으로 훼손된 잔디 부위를 중심으로  
롤 잔디 보식을 진행했다.

지난달 14일부터 나흘동안 경기장 중  
양부분 약 1500㎡(450평)를 롤 잔디로  
깔고, 그외 부분은 코어 보식을 실시했  
다. 아울러 영양제, 비료 살포, 병충해 작  
업 등으로 건강한 잔디 환경을 조성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경기감독관은  
잔디상태, 골대규격과 위치, 라인마킹 등  
을 점검했으며, 최종적으로 아시아축구연  
맹(AFC)에서 홈경기 개최를 확정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아미키즈 팝업놀이터

아이를 위한 놀이 행사 '아미키즈들의 특별한 하루, 팝  
업놀이터'가 12일 서구 유덕어린이공원에서 열려 참가  
어린이들이 김이강 서구청장이 이끄는 페타이어 굴링체험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주 서구청 아동청소년과, 유덕동 행정복지센터, 월드비전무진종합복지관, 세이브더  
칠드런,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광천문화의집, 쌍촌문화의집, 성균관·광천·유덕지역  
아동센터가 준비했다.

김영배 기자

주최 광주 동구청,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추진단  
주관 케이엠경영전략연구원

### 광주충장상권 르네상스사업

## 충장상권 정체성 찾기

#### <좌담회> 무엇으로 특화 시킬 것인가

일 정 : 11월 15일 (금) 오후 2:00 ~ 4:00  
신 청 : 우측 QR코드 통해 구글폼으로 사전신청  
장 소 : 전남일보 지하 1층 승정문화관



일 정	내 용		
오후 2:00~3:00	충장로 정체성 찾아가기 - 무엇으로 특화시킬 것인가	임창욱 호남대학교 교수	
오후 3:10~4:00	좌담회 진행	좌장	임창욱 호남대학교 교수
		패널	심수홍 (주)시너지타워마케팅 총괄책임자
		신지양 군산상권활성화재단 센터장	
		문유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북부센터장	
		박상규 지역상권진흥협동조합 이사	
		김정록 유통경영연구원장	

#### <명사초청특강> 충장상권의 가능성

일 정 : 11월 21일 (목) 오후 4:00 ~ 6:00  
신 청 : 우측 QR코드 통해 구글폼으로 사전신청  
장 소 :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



명 사 : 모종린 교수  
'골목길 자본론'의 저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처 처장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학장

